

# 청렴도 하락 나주시 고강도 대책 마련한다

### 강인규 시장 “깊은 반성”...비위공무원 퇴출제 등 징벌적 제재 강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인적 쇄신·행정 투명성 높이기 촉구

나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에서 크게 하락해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5일 발표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나주시를 포함,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충남 계룡시 등 4개 자치단체뿐이다.

국가권익위원회는 해마다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가 높은 1등급부터 최하위인 5등급까지 ▲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청렴도 결과를 듣고 곧바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실·과·소 부서장 및 20개 읍·면·동장을 소집해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청렴도 결과에 대해 깊은 반성과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과 부정부패 제로화를

위해서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와 회계는 물론, 비위 공무원에 최고 징계수위인 ‘비위 공무원 퇴출제’ 시행 등 징벌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인규 시장은 “시민들의 호된 질책과 따끔한 충고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나주’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나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전 나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고 나주시의 청렴도 추락에 대해 “나주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 청렴도 추락에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나주시민에게 사과, ▲ 책임자 문책을 통해 인적쇄신 단행, ▲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 등을 강 시장에게 요구했다.

나주시민사회단체는 “전국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는데 나주



강인규 시장은 최근 나주시 청렴도가 크게 하락하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주시 제공>

시는 역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특히 인사와 비리 등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 내부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의 16개 공공기관은 종합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한전KDN(주)을 올해도 2등급을 유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1등급)와 한전KPS(주)(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3등급을 기록했다.

또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전력거래

소(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등급)은 4등급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3등급)는 고객정책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전체 조사기관에 대한 부패유형으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 가장 높은 25.8%(141건)을 차지했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건수가 20.9%(114건), 공금횡령 및 유용 19.2%(10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42.3%(33건), 공금횡령 및 유용 28.2%(22건), 직권남용 9%(7건) 순으로 밝혀졌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2018년 신규·체감시책 실적 보고회

### 나주시 116건 추진 상황 점검

나주시는 ‘2018년 신규·체감시책 추진 실적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신규·체감시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실·과 소관별 신규시책 82건을 비롯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시책 33건을 발굴·추진했다.

대표적 추진 성과로는 국가적 현안인 인구감소 극복방안으로 추진한 ‘미혼남·여 결혼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48개소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했으며,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월 3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원도심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도 눈길을 끈다.

시는 올해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영산포권 ‘근대화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와 음성권B지역(죽림동)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도시’에 대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약취 문제 해결을 위해 해 도시반경 1km내의 축사 4개소(돼지 2, 오리2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을 실시했다.

유래없는 폭염날씨에 대비한 안전 분야 시책도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주요도로변 횡단보도, 혁신도시 호수공원 일대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그늘막) 65개소를 설치했으며,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독려해 여름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의 안심귀가를 위한 ‘스마트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에 취약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불법 게시 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품 전용 수거 백(bag) 제작’,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령 어르신

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을 담은 손수레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의 실생활에 유용한 시책을 추진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54개 사업 추진

나주시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5년간 지정돼 여성친화와 관련 54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

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일찍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 시책사업 공모 ▲여성동아리 육성사업 공모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한 나주시 홍보물.

또 시는 올해 10월 전남 지자체 최초로 ‘여성 통계’를 개발해 보급하면서 여성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했다.

시가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 평생학습과 여성 직업능력 개발 연계 ▲ 스마트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 공동육아나눔터 설립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등 여성과 아동 등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25년 대장정’ 나주읍성 4대문 복원 마무리 24일 북망문 낙성식

천년고도 목사교을 나주(羅州)를 상징하는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이 ‘북망문(北望門·사진) 복원을 끝으로 25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나주시는 24일 북망문 복원 현장에서 시민 500여명과 함께 ‘북망문 낙성식(落成式)’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나주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337호로 서울 도성(都城)과 같이 고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4대문을 비롯해 객사인 금성관, 동헌(제급헌), 목사내아 관아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라도의 대표 석성(石城)이다.

읍성에 규모는 전체 둘레 3.7km, 면적 97만2600㎡ 규모로, 조선시대 나주로 부임한 목사 김계희(1457-1459)에 의해 완성됐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성문과 성벽이 철거되었다.

시는 과거 고려시대 8목 중 하나로 전라도(全羅道)의 중심이자 2천년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지난 1993년

남고문(南高門) 복원을 시작으로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05년 10월 동점문(東峯門)과 2011년 10월에 영금문(映錦門 또는 서성문) 복원을 완료했으며 사업 추진 25년만에 마지막 성문인 북망문 복원 공사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북망문 복원공사는 총 4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부지매입 이후 4년여 만에 전통 성문 문루(門樓)와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인 응성(甕城)을 비롯해 총 길이 71m에 이르는 성벽 복원을 완료했다.

특히 북망문은 성문 형식에 대한 학계 의견 차이로 이와 관련된 회의가 16차례나 열리며 1년 6개월 간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망문 성문 형식이 1920년 지역 토착민들에 의해 발견된 ‘속수나주지’라는 문헌에 ‘홍예식(虹霓式)’으로 밝혀지면서 곡선 형태의 무지가 모양으로 최종 복원됐다.



4대문 복원 완료에 따라 시는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읍성권 내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해 독보적인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운영하고 있는 목사내아, 목관아를 활용한 ‘전통한옥 숙박체험’과 문화

재정 향교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등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문 일원에 잔디광장과 주차장,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유휴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